

유네스코 유산 해녀, 1년 새 10% 줄었다

작년 말 기준 현직 2371명… 전년보다 252명 ↓
10명 중 6명꼴 ‘70세 이상’으로 고령화 가팔라
도 “고령화로 물질 못해 은퇴하는 해녀 많아져”

제주지역 해녀가 갈수록 줄어들고,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도내 해녀는 2371명으로 집계돼 전년 2623명보다 252명(9.6%) 줄었다.

제주도는 해녀 감소 이유에 대해 “고령화로 더이상 물질을 못하는 등 해녀 은퇴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5세 이상 해녀들을 대상으로 현직에서 은퇴할 경우 매달 5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남아 있는 해녀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조사 결과 결과 현직 해녀 중 50세 미

만은 105명, 50~69세는 766명, 70~79세는 177명, 80세 이상은 423명으로, 70세 이상이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해녀 감소 현상이 앞으로 더욱 가팔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주도는 해녀들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규 해녀 육성을 통한 세대 계승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올해 총 235억원을 투입해 29개 해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복권기금 87억원으로 해녀 진료비를 지원해 고령 해녀의 의료 부담을 줄이고, 고령 해녀 수당 지급으로 무리한 조업을 방지한다.



제주 해녀 전수조사 결과 1년 새 252명 줄고 고령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일보 DB

또 잠수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도 확대한다.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서는 현장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녀 역사와 가치를 기록·홍보하는 사업을 지속한다.

김종수 도 해양수산국장은 “고령화에 대응한 의료·안전 지원과 체계적인 전승 정책을 통해 해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녀문화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제주도는 해녀 의료비 지원 대상 확인과 정책 수립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해녀들의 나이와 활동 인원 등을 파악하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교육청 공무원인데, 선입금 하면…”

실명 도용한 사기 잇따라… 하루평균 5~6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면서 도교육청이 도내 업체를 상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최근 하루 평균 5~6건의 사기 의심 사례가 접수되고 있음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조치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근래 확인된 사기 수법은 실제 공무원의 실명과 명함까지 도용하는 등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주요 유형으로는 학교용 자동심장충격기(AED) 대량 구매를 명목으로 특정 업체 물품의 선결제를 유도하는 사례, 학교 공사 과정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관급자재 대신 특정 사급자재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 수익계약을 가장해 감사 임박 등을 빌미로 긴급 납품과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특히 도교육청과 거래 이력이 있는 업체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뒤 접근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현재까지 실제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범죄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누리집에 피해 예방 안내문을 게시하고, 시설공사 협회와 관련 단체에 주의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나 전화로 물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선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제주항 무인발권 ‘호평’ 만족도 조사결과 95.8점

제주항 연안·국제여객터미널에 설치한 무인발권 키오스크가 이용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항 여객터미널 무인발권 키오스크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가 95.8점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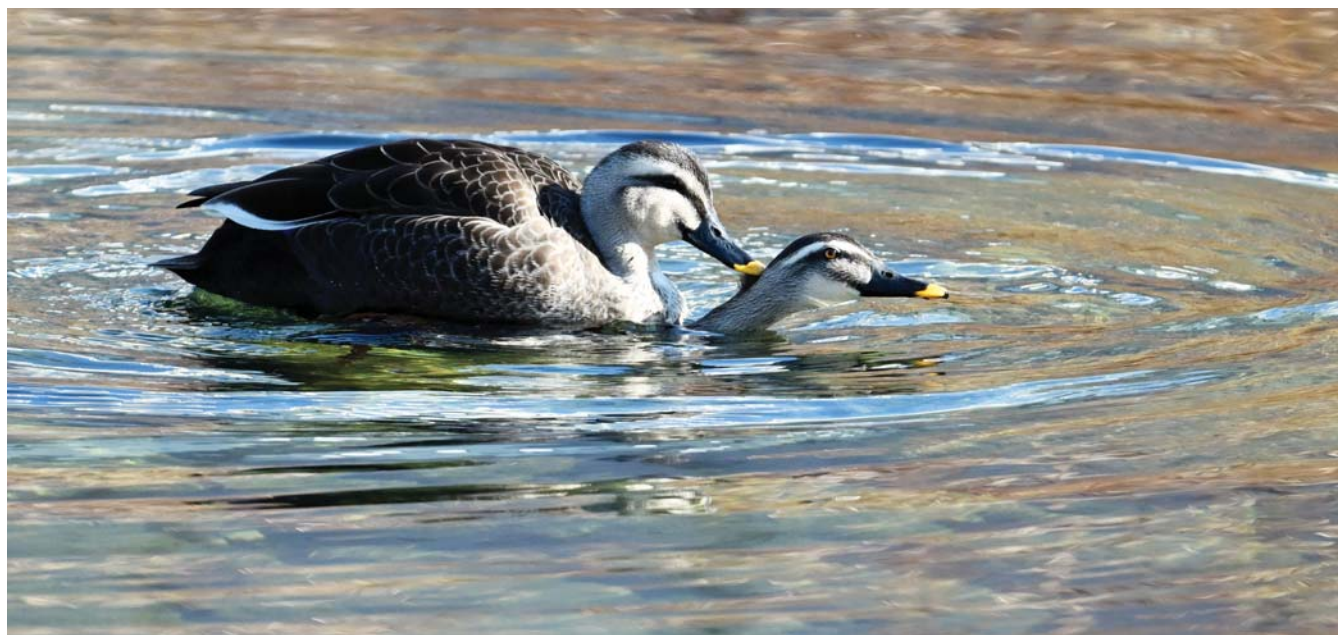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3850만원을 들여 연안여객터미널 2대, 국제여객터미널 2대 등 총 4대의 무인발권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제주도는 무인발권 키오스크 설치 이후 현장에서 이용객들이 대기 없이 승선권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어 출항 전 겪었던 불편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무인발권 키오스크에서는 예약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쉽게 발급할 수 있으며 현장 호출 기능도 제공한다.

제주도는 앞으로 제주항에 무인발권 키오스크 2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상민기자



짜짓기 하는 흰뺨검둥오리들 20일 제주시 외도천에서 흰뺨검둥오리들이 종 번식을 위해 짜짓기를 하고 있다.

강혁만기자

도, 설명절 대비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내달 13일까지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설명절 맞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행정시 축산물 위생부서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원

산지 표시 위반행위나 불법 도축 등이 의심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자치경찰단이 함께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도축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축적판매가공업으로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점검실적이 없

는 업체를 우선 점검한다. 특히 수입산이나 타 시도산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와 민원신고가 많은 업체는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업소 위생관리 상태 ▷무신고 판매 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행위 ▷냉장·냉동 제품 보존온도 준수 여부 ▷표시기준 준수 여부 ▷부적합 원료 사용 여부 등이다.오소별기자

신입 순경이 상습무전취식을 일삼은 6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화제다. 주인공은 지난해 1월 말 경찰에 입문한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김성준(26·사진) 순경이다.

2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 30분쯤 제주시 건입동 소재 한 식당에서 갈치구이와 성계미역국, 주류 등의 음식을 시켜 먹고 음식값 9만7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20분에도 인근의 한 식당에서 또 다시 무전취식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김성준 순경은 경찰 입문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남다른 눈썰미로 피의자를 특정했다. 범행 당일 오전 피해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현장에 출동해 CCTV 속 A씨의 인상착의를 숙지했다.

이후 점심식사를 위해 중앙지구대 인근 식당을 찾았던 김 순경은

해당 장소에서 A씨를 발견, 현장에서 신원 확인과 함께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1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상습 사기 혐의)으로 수배 중인 상태였다.

김 순경은 “도민의 불안이 있는 곳이 제 자리라는 생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취 임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부분부장



고 호 웅
(구좌읍 월정리 출신)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부분부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김녕농협 임직원 일동

승 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장



김 종 수
(부이사관)



고 경 호
(서기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행원육상양식단지협의회

회장 강명주 외 회원 일동